

PAPER with
10 Editors

김신지

당신 쪽으로
어깨가 기울 때
뮤지션 막시밀리언 헤커



막시밀리언 헤커

사람이 꼭 행복해야만 하는가?

독일 뮤지션인 막시밀리언 헤커(Maximilian Hecker)의 7집 정규앨범 <Mirage of Bliss>의 라이너 노트를 써달라는 청을 받은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이전부터 그의 음악을 좋아하며 들어왔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그러마 했지만, 막상 그에 대해 쓰려 하니 고민이 깊어졌다. 내가 그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노래 속에서 언뜻언뜻 비치는 모습뿐이었다. 마음속에 할 말은 많지만 다 말할 수 없으리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노래했다. 실패한 사랑과 좌절된 희망, 끝없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공기처럼 그의 음악을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에 관한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데뷔 이후 그가 그린 음악의 궤적, 그가 하거나 하지 않은 말들, 팬들의 추억으로 기록되어 있는 지난 공연들... 하지만 그런 조각들을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한 사람의 형태로 완성되지는 않았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히려 나는 읽어내지 못한 행간과 의미가 닿지 않는 정보들 사이에서 그가 더욱 궁금해졌다. 2001년, 첫 앨범 <Infinite Love Songs>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데뷔한 뒤, 여섯 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하며 꾸준한 음악적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뮤지션이다. 2004년 처음 내한한 이후로 그는 거의 앨범이 나올 때마다 한국을 찾고 있으며, 한국 관중들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는 말로 한국 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5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그는 다시 한 번 한국을 찾았다. 공연을 하루 앞둔 오후,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나는 그를 직접 만나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그동안 내가 홀로 미루어 짐작한 것들이 어디까지 맞고 혹은 틀린지. 무엇보다 이런 음악을 하는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서울에 3일째 체류 중인데, 그사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 서울에 자주 오긴 했지만 늘 공연 때문에 와서 둘러볼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 다행히 어제는 하루가 비어서 여러 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북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서울에 이런 곳도 있었나' 싶은 기분이었다. 항상 모던하고 깨끗한 느낌의 도시 풍경만 보다가 한국적인 건축물이나 고즈넉한 골목을 걸으니 좋았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라면, 두 번째는 내 가슴에서 나온 진짜 대답인데, 길거리의 한국 여성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봤을 때 행복해지는 부류의 인간은 아니다. 오히려 좀 슬퍼진다. 그들이 다 내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좌중 웃음)

첫 질문부터 솔직한 답변 고맙다.(웃음) 한국에 8번째 방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나라엘 8번이나 왔는데, 한국에 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서울에 처음 온 건 2004년이다. 지금까지 8번 오긴 했지만 한국에 대해 아주 익숙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어서 올 때마다 여전히 흥분되고 설렌다. 내 음악이 유독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사랑을 받다 보니, 베를린의 집에서 지낼 때 한국은 어떤 곳인지 책도 찾아보고 내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짐작해보곤 한다. 그래서 직접 한국에 왔을 때, 내 생각이나 느낌 중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는지 비교해보는 게 재밌다. 한국은 내게 아직도 알고 싶은 게 많은 곳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진 한국의 문화가 있나?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 나는 이국적인 음식을 그리 좋아하거나 즐기는 편이 아닌데, 특히 중국 음식이나 태국 음식처럼 향이 강한 음식은 잘 못 먹는 편이다. 한국 음식에는 그에 비해 뭔가 유럽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 불고기를 처음 먹었을 때 무척 놀랐었다. '어떻게 고기를 달게 요리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다. 대체 어떻게 달게 하는 건가? 설탕이나 꿀을 넣나?

설탕도 넣지만 보통 키위나 배 같은 걸 갈아서 쓴다.

아, 그래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난 거군. 독일에서 고기는 달게 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다.(웃음) 아무튼 한국에선 고기 종류를 많이 먹어봤다. 삼겹살도 아주 좋아해서 어제도 먹었다. 해물파전도 좋아한다. 한국 음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베를린에서 지낼 때도 가끔 한국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먹곤 한다.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13>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내일 공연은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

언제나 그랬듯 순수한 감정(Pure Emotion)에 대해 노래할 예정이다. 관객들과 함께 상상의 세계, 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를 이끌고 싶다. 무대 위에 특별한 장치나 다른 악기 없이, 그랜드 피아노와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솔로로 연주할 계획이다. 홀로 무대에 서서 공연을 이끄는 건 밴드 공연과는 달라서 관객들을 처음에 몰입시키기는 더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사운드나 무대를 혼자서 단출하게 이끌어가는 공연을 훨씬 즐긴다. 어느 순간 나와 관객이 함께 몰입되어, 음악이 안내하는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정말 좋다.

초창기의 거리 공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공연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신에게 공연은 어떤 의미인가?

무척 중요하고, 또한 무척 어려운 일이다. 혼자 집에서 음악을 만들 때는 마냥 행복하다. 내가 만든 음악을 나 혼자 듣고 충분히 즐기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기분을 관객들과도 똑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란 쉽지 않다. 거리에서 공연을 시작하면 처음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느끼는 것만큼을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결론은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오히려 관객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처럼 즐기면서 노래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관객들이 나와 비슷하게 느끼고 음악을 즐긴다는 것이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잊지 못할 공연에 대한 기억이 있나?

몇 번 있었다. 한 번은 베를린에서 친구들과 새해맞이 파티를 할 때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그날은 마치 내 연주나 내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친구가 다가와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고 말해주었는데, 그 순간 나 역시 그녀의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순간 같은 느낌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타이베이에서 2006년에 했던 공연이다. 당시 내가 좋아했던, 하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자가 관객석에 있었다. 그녀를 위해 공연을 하는 기분으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2010년에 서울에서 했던 공연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때도 러브 스토리가 있다.(웃음) 당시 도쿄에 살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직후였다. 도쿄에서 서울로 건너와 공연을 하는데 도무지 공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속에서 뭔가가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고, 머릿속에선 내내 ‘그녀와 정말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공연 내내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심리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음악에는 도움이 됐다. 몰아치는 감정 속에 내가 충분히 잠겨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도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 같다.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17살 무렵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했는데, 그때 우리가 다 록 스타가 될 줄 알았다.(웃음)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여러 회사에 보냈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보다,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한 뮤지션이 되긴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베를린으로 이사 온 뒤, 곡도 쓰고 거리에서 공연도 하다가 집에서 혼자 노래를 몇 곡 녹음해 50장의 데모 테이프를 만들었다. 그게 나의 첫 번째 음반이었다.(웃음) 그리고 나자 혼자서도 음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거리에서든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내가 만든 테이프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었으니까. 나중에 그 데모 테이프를 들은 두 군데의 레코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중 하나가 첫 앨범이 나온 키타-요(Kitty-Yo) 레이블이다. 그것이 내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다.

“내 노래가 우울하고 슬프다는 것은 오해이며, 나는 늘 희망에 대해서 노래해왔다”는 얘기를 꾸준히 했다. 노랫말을 보면 사랑이 주는 행복보다 그로 인한 외로움, 갈망과 구원에 대해 노래하는 편인데도, 그것을 희망이라 말하는 이유는 뭔가?

내 노래의 가사가 물론 어두운 내면이나 외로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불행에 대해 노래하더라도 그것을 노래하는 순간에는 그 불행이 떨어져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노래를 마치면 어떻게든 그 절망이 끝나는 것이다. 그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나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내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도 아마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나는 삶의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이 주는 감정들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런 감정이 내게는 행복(함께 춤추고, 날씨 좋은 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그런 어두운 감정을 통해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앞서 말한 단순한 행복보다 인간에게 더 깊은 기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그저 즐겁기만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레너드 코헨의 <수잔>이라는 노래가 매우 어둡고 침울한데도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구하던 어떤 답을 찾거나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한 번쯤 표출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든 짐 모리슨의 전기 영화 <도어즈>를 보면, 짐 모리슨이 ‘사람들은 집에 차가 두 대 있는 것보다 어떤 신성함이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결국 인간이 원하는 건 차나 돈이 주는 단순한 종류의 기쁨보다 더 깊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6집 앨범의 타이틀인 <I Am Nothing But Emotion, No Human Being, No Son, Never Again Son>이 무척 인상 깊었다.

앨범의 첫 트랙이 컴퓨터 목소리로 낭독하는 시인데, 그 시의 일부에서 따온 제목이다. 가끔 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가족, 얽혀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규율, 혹은 나의 슈퍼에고가 통제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앉아 우리가 날아가고 싶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발을 다시 땅에 붙잡아 앉히고 땅을 딛고 걷게만 만든다. 그 모든 것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에 대해 노래하고 싶었다. 가끔 사랑에 빠지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런 마법 같은 상태를 경험하지 않나? 얽혀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것, 유한한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 그런 순간에 대해 노래하고 싶었다.

음악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 억눌러두거나 숨겨두었던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일상생활에서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평소엔 재미없는 농담을 하거나 실없이 웃으며 아이같이 굴곤 한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나에겐 그게 음악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도 나와 비슷하다는 느낌이다. 한국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밤에는 술을 마시거나 하면서 자유롭게 놀지 않나. 또 한국의 멜로영화 같은 것도 감정선이나 전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평소 일상에서 분출하지 못한 감정을 표현할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내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내 음악을 통해서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표출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녹음을 할 때나 무대 위에서나 모든 악기를 직접 연주한다. 가장 편하게 느끼는 악기는 무엇인가?

솔직히 말하면 드럼이다. 어려서부터 쳐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악기들에 비해 편하고 연주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 반면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게 가장 어렵다.

첫 악기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내 인생의 첫 악기는 리코더였다.(좌중 웃음) (리코더 부는 시늉을 하며) 리코더가 어떤 악기인지는 알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사주신 악기다. 두 번째 악기는 드럼이었다.

드럼은 직접 돈을 모아서 샀나?

아니다. 9살 때 종이 박스 같은 걸 모아서 드럼 세트처럼 만들어서 치곤 했다. 그걸 보신 부모님이 진짜 드럼 세트를 사주셨다.(웃음)

어딘가 전략적인 방법이다.(웃음) 음악을 하며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나?

특별히 무언가를 경계하지는 않는다. 나는 항상 단순한 시도를 하는 편이고, 이 음악이 어떻게 들려야 한다는 계산적인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그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음악으로 만든다. 음악은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머릿속이나 생각은 복잡할지언정, 음악에 담은 감정은 6살짜리 아이가 그 감정을 느끼는 대로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6살짜리 아이와 소통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드러머로 활동한 적도 있는데 보다 특적인 음악, 댄스블한 음악을 해보고 싶진 않은가?

테크노 곡을 10곡 정도 만들어두었다. 발표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단순히 나를 위해서 재미로 만들었다. 예전에 베를린에서 DJ로 활동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 재미난 테크노 송을 틀기도 했다. 한번은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테마송을 샘플링해서 만든 곡을 틸 적도 있다.

흥미롭다. 새 음반에 보너스 트랙으로 넣는 건 어떤가?(웃음)



안 된다. 내 음악 스타일과 너무 달라서 듣는 이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다. 너무 정반대 스타일이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노래를 들려준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긴 하다. (비트 속에 계속 반복되는 독일어 가사를 가리키며) 무슨 뜻인가?

I wanna be laid. 눕혀지고 싶단 뜻이다.(좌중 폭소)

당신 말대로 이 곡을 듣고 나니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노골적인 음악을 듣고 나서 질문하긴 뭐하지만.(웃음) 당신의 음악에는 독보적인 감수성이 있다. 평소에 감수성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하다.

글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관계를 자주 망치거나 연애에서 늘 문제를 겪는 것, 이를 떠낸 여자친구와 항상 잘 안되거나 고백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것이 내 감수성을 유지해주는 것 같다.(좌중 웃음) 또 항상 비참하게 느끼거나 자주 자신감을 잃는 것, 자존감이 현저히 낮은 것도 내 감수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다.

예전 인터뷰에서도 '관계에 서툴다'는 말이나 '사랑이 어렵다'는 말을 꾸준히 해왔더라.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았을 것 같다.

아마 성격 탓이겠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때가 그리 많지 않다. 늘 수줍거나 부끄럼을 심하게 타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주눅 든 말투의 연기 톤으로) '그녀는 결코 날 좋아할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노력은 해야하지. 저가... 커피 마시러 가실래요?' 이런 식이다.(좌중 웃음) 여자들에게 내가 그리 멋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의 결과가 매번 나의 이 이론을 입증해준다.(웃음) 용기를 내서 다가서면, '뭘야, 애는?' 같은 반응들이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성숙한 인간이 아닌 거 같다. 좀 더 성숙해질 필요도 있고 강해

질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관계에 있어서의 '성숙'이란 건 어떤 걸 뜻하는 건가?

글쎄, 상대방에게 '나는 계속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을 주는 것 아닐까. 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건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거다. 하지만 처음의 그런 강렬함이 지나가고 나서도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성숙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 확신이나 믿음을 주기엔 아직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어린 시절엔 어떤 소년이였는지도 궁금하다.

평범한 소년이였다. 아마 한국과는 다른 문화일 거라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반항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16살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좌중 웃음)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는 16살에 반항을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문화가 좀 다른 것 같다. 나도 그냥 보통의 소년들처럼 그 나이 때 반항도 하고 그랬다. 그러다 19살에 독일을 해서 처음 베를린으로 왔다.

파트타임 간호사, 모델 등의 독특한 이력들이 있던데 그 시간들은 어떠했는지도 듣고 싶다.

파트타임이 아니라 간호사가 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것이다. 3년 과정에서 2년까지 했는데 레코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다. 또 베를린에 패션 도시다 보니 모델 에이전시가 많은데, 베를린에 간 초창기에 에이전시에 등록을 해서 잠깐 모델로 활동한 적 있다. 일 년에 몇 번씩 일 관해서 연락이 오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패션쇼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보통 텔레비전 광고 모델 같은 걸 하는 거였다. 그런데 오디션을 보고 하는 게 내 성격과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두었다.

베를린을 여행하러 가는 이들에게 어디를 추천해주고 싶나?

킹사이즈 바(Kingsize Bar)라는 곳이 있다. 아주 작은 곳인데, 모두가 취해서 '헤이, 왓츠 업?' 하는 곳이다.(웃음) 막상 가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사람들이 왜 이래?' 싶을 수도 있는 낯고 작은 바지만, 낯것 그대로의 베를린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반대로 한국을 공연이 아닌 여행으로 찾는다면 어떻게 다니고 싶은가?

이렇게 한국에 자주 오면서 한두 명씩 친구들이 생기고, 한국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좋다. 포토그래퍼 김종만이 그런 친구 중 하나다. 그와는 2011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레이첼 야마가타와 듀엣 공연을 했을 때 처음 만났다. 김종만은 그녀와 친구 사이였는데, 그녀를 만나러 왔다가 나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이전부터 팬이었다고, 내 음악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해줬는데, 그 뒤로 인연이 되어서 교류하고 있다. 아직 아주 친하다고 할 순 없지만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생기고, 인간적인 교류가 점차 늘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을 또 찾고 싶어지는 이런 상황이 좋다. 이런 친구들에 이끌려 여행하고 싶다.

독일 하면 흔히 맥주와 축구, 베를린 장벽을 떠올린다. 한국의 팬들에게 소개하고픈 독일의 멋진 문화가 있다면?

독일인 특유의 로맨틱한 태도라고 할까. 비록 일반적으로 독일인 하면 차갑고 이성적인 느낌을 떠올리지만, 생각해보면 독일은 예로부터 로맨스의 중심에 있었다. 클라이스트, 괴테 같은 작가들, 바흐, 바그너, 브람스 같은 음악가들을 보라. 독일인은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면에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과 풍부한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다. 난 이것이 독일인과 한국인의 유사성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렇지 않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사랑, 큰 감정이 있지만 그걸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감정이 큰 만큼 표현도 많이 하는 편이다. 독일의 젊은 이들은 어떤가?

독일도 그렇다. 베를린에서는 어디에서든 키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런가? 그런 모습이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나?(웃음)

그렇진 않지만, '하아... 나도 키스하고 싶다' 생각하게 만든다.(좌중 웃음) 한국에서도 거리에서 키스를 하고 그러나?

물론이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공원에서도...

프렌치 키스?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말한 건 프렌치 키스다. 독일에선 정말 어디에서든 프렌치 키스를 나누는 걸 볼 수 있다.(웃음) 아! 궁금한 게 있다. 한국 여자들은 정말 어떤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기도 하나?

그런 면이 있긴 있다.

대체 왜 그러는 건가?

한국어에는 그걸 뜻하는 '내숭'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아마 독일어엔 없을 거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태도는 남자를 위태롭게 한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특히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다가섰는데,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 상처받고 도망가 버릴 게 분명하다.

미안하지만 한국엔 또 '열 번 짝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용기를 주는 표현도 있다.

아니, 대체 왜? 그런 상황은 여자에게도 매우 스트레스를 주지 않나? 지금 어떤 남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일곱 번, 아홉 번, 열 번이 되기까지 마음 끓이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속으로는 '이러다 이 사람이 그냥 떠나면 어쩌하지' 싶으면서도, (점점 이 상황에 몰입하여 연기 톤으로) '아냐, 아직 다섯 번째야. 지금은 이 멍청한 게임을 계속해야 할 때야!' 하는 거.(좌중 폭소) 그런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이지 않나?

그렇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정말 이상하다. 유럽에서는 여자가 '노'라고 하면 그건 진짜 거절의 의미다.

잘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승낙을 하면 상대가 나에게 대한 관심을 빨리 잃게 될 거라



는 두려움도 있는 거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주제에 열을 올리나? 한국 여자들의 내성을 경험해본 건가?

그렇다. 내가 왜 거절당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좌중 웃음)

주로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나?

나는 늘... 그리고 보니 그런 심리 게임을 즐기는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긴 하다.

그것 봐라. 그게 연애의 심리다.(웃음)

몇 번씩 'No'라고 말하는 '프린세스' 같은 타입의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이끌리는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건 매력을 느낀다는 거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솔직한 사람이다. 실제로 내 깊은 속마음은 건실하고 꾸밈없는 사람을 원하는 거다. 그런데도 평소에는 언제나 그런 소모적인 게임을 즐기는, 나와는 맞지 않는 여자에게 다가가다 보니 관계에 실패하는 것 같다. 나 스스로 먼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좋은 관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까부터 자주 나오는 얘기여서 궁금하다.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았나?

굳이 찾자면 유년 시절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 장애가 있는 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훨씬 더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형과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제대로 보살필 틈이 없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늘 부모로부터 거절당하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다. 결국 누이는 18살에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그런 환경이 아직도 내게 영향을 미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언제 거절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오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일이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면 내 마음은 늘 그런 걱정에서 사로잡혀 있다. (조용해진 좌중을 살피더니 갑자기 의자에 길게 눕는 시늉을 하며) 상담용 소파가 있나? 이 얘기를 계속해도 될까?(좌중 폭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있다면?

가면을 쓰지 않는 것,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비록 내가 좋은 모습이 아닐 때나 아플 때나 심지어 머리를 바보같이 자르고 난 후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웃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즐기는 편인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는 편인데, 당신은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상태는 혼자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 즉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게도 외롭다는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시거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외로움이 사라진다 해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이게 뭐가' 싶기도 하다. 다들 그렇지 않을까. 지금은 그저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오히려 궁금해하는 단계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떤 압박도 없는 상태다. 누구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예를 들어, 한번은 코펜하겐 공항 근처의 오래된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혼자 있을 때가 올해 중에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 물론 나도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 이를 테면 사랑을 찾아야 한다거나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가끔 압박을 느낀다. 사람들은 꼭 그것을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사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결코 무언가를 놓치며 산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그런 모든 것들에서 떠나서 혼자 오롯이 평화를 느낄 때가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코펜하겐 공항 근처의 그 마을만 해도 그렇다. 다른 이들에겐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작은 마을이 그 순간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공간이었다.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한다면?

1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단것을 허하는데.(웃음) 대부분 아이스크림이다. 그게 내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 중 하나다. 특히 아이스크림과 조강이 합쳐질 때! 조강하고 나서 샤워 뒤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때가 정말 좋다. 우디 앨런의 영화, 휴 그랜트가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도 좋아한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빈집> DVD도 가지고 있다. 무척 좋아한다. 당연히 음악을 만들 때도 그런 순간에 속하고... 또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과 나란히 누워 있을 때도 행복하다. 그 외엔 그다지 특별한 게 없다.

현재에 만족하는 성격인가? 비판론자와 낙관론자 중에 따지자면 어느 쪽인지 궁금하다.

(잠시 침묵) 사실 이런 질문은 내게 늘 어렵다. 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타입이 아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만족이나 행복 같은 것이 내게는 그리 중요한 단어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이 꼭 행복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집착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행복이 그렇게 큰 가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어쩌면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느끼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나에게겐 그저 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스스로 어떤 종류의 평화를 갖는 것, 너무 꿈꾸거나 너무 바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마인드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상태이지 않을까. 물론 그건 닿기 힘든 경지일 테지만.

그럼 마지막 질문이다. 어떤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은가?

무엇보다 음악과 함께 나이 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계속 음악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지 않아도, 다른 삶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웃음) 또 나이 들면서 더 릴렉스되고 편안한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일상의 평온을 만들 수 있는 삶, 나 자신으로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튿날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조금 들뜬 모습의 그는 곧잘 농담을 던졌고, 조니 뎀 흥내를 내며 피아노를 치기도 했고, 관객석에 앉은 팬들을 향해 춤을 청하기도 했다. 마치 어제와는 또 다른 사람처럼 무대 위의 그는 낯설어 보였다. 페스티벌의 들뜬 분위기 탓일까, 혹은 빛을 바꾸는 저 조명 때문일까 이유를 더듬어보았지만 어쩌면 그건 정말 어제 만난 그와 오늘 만난 그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다. 인터뷰라는 것은 수없이 중첩된 그 사람의 시간 속에서 극히 짧은 순간을 함께하며, 오로지 그 시간 동안의 그를 더듬더듬 담아낼 뿐이라는 것. 그렇기에 내가 본 것은, 그 사람의 조각일 뿐이라는 진실. 그를 만났다고 하여, 그의 음악이 더 친근하게 들리거나 새로운 감상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가끔 그의 노래와 함께 떠오르긴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사람은 꼭 행복해져야만 하는 거냐'고 되물던 목소리 같은 것들. 행복을 향해 맹렬하게 달리느라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행복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는 듯 앞에 놓인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던 심상한 눈빛 같은 것들.

인터뷰 김신지 <fromsirin@naver.com> 사진 노우석 <playon83@nate.com>